

당재길 걷고싶은 녹화거리 설계¹⁾

김성균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The Walkable Green Street Design for “Dangjae-Gil”

Kim, Sung-K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treetscape design for “Dangjae-Gil” which is located at 126-1 Yangpyung-2dong, Yeongdeungpo-gu, Seoul and is about 500m in length and about 24m in width. The design goals are to make a green street on which people want to walk and people can walk and rest safely and pleasantly.

To achieve these goals, concepts of environmentally-friendliness, placeness, safety, amenity, vitality, connectivity, and democracy are developed. For pedestrian safety, shared street concepts, such as crank, slalom etc. are adopted. The site is divided into 5 thematic spaces, such as “Village Entrance Space”, “Culture Street”, “Dangsan Park”, “Nature Street”, and “Ferry Space”.

The Village Entrance Space, which is an entrance of the Dangjae-Gil and a welcoming space, is for communicating information about the area. “Dangnamu”(zelkova tree) and signs are introduced here. The Culture Street is for experiencing past and present culture of the area. Colored tiles and plant boxes attached to benches are introduced. The Dangsan park is a sacred space where modern people can feel the sacredness of nature and of being in a refuge. Dangjib, Dangnamu, multi-purpose plaza, athletic facilities, and playground for infants are introduced.

The Nature Street is a space for feeling and learning nature which has disappeared from the area leading to the river and a space for community participation. The elementary school walls were demolished and nature education spaces, such as butterfly and dragonfly garden, ecological pond, wildflower garden, etc., which are related to school education, are introduced.

The Ferry Space is a space symbolizing a old ferry crossing and an entrance plaza to a bridge for “Sunyu-do”. A boat-shaped deck, an elevator for handicap people, and parking space are introduced. In conclusion, sustainable management schemes for the site are suggested.

Key Words : Streetscape Design, Dangjae-Gil, Village Park, Nature Education Garden

1. 서론

당재길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2동 126-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연장 약500m, 폭 약24m에 이르는 왕복 4차선 가로이다. 서울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창출과 이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선유도 공원과 보행육교 설치공사와 연계한 진입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재길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현상공모하게 되었다.

II. 대상지 현황

1. 자연환경 및 경관

대상지 주변에는 안양천 및 한강 고수부지 및 선유도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대상지는 안양천의 녹지대와 한강의 녹지대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지형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점차적인 오르막 경사를 이루고 있어 변화있는 경관을 이루고 있다. 식생은 가로수가 거의 전부이며, 수종은 주로 양버즘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당산초등학교 담장 안에는 양호한 은행나무가 열식되어 있고, 선유도에 이르는 육교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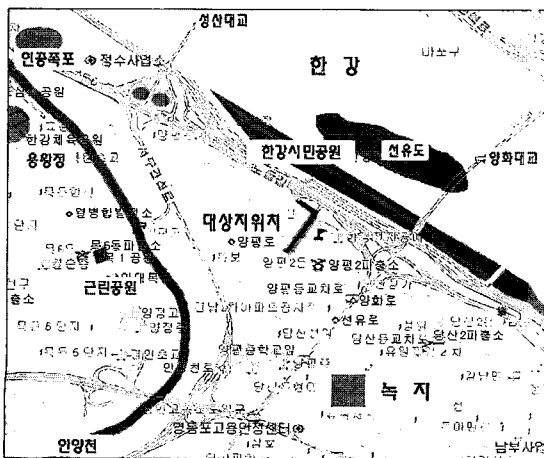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지 위치

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산벚나무, 무궁화 등이 식재되어 있다.

경관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트인 경관이며, 도로의 높은 부분에서는 북쪽으로 북한산이 멀리서 보인다. 주변지역은 비교적 낮은 건물로 침체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2. 인문환경

1) 토지이용

주변지역은 서비스업(회사)이 주종(50곳)을 이루며, 카센터(13곳), 주택(13곳), 상점(식당) (9곳) 등이 분포되어 있다. 주요 시설로는 당산초등학교가 대상지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부분에는 매각되지 않은 공터와 공사가 중단된 철골구조물이 방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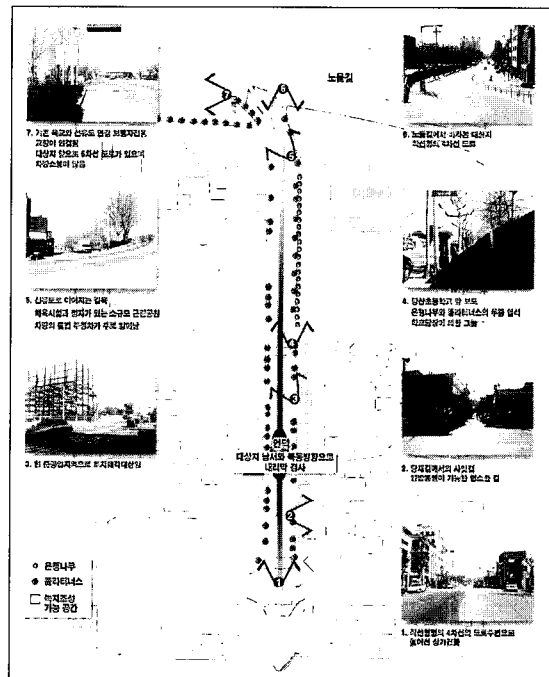


그림 2. 대상지 주변현황

2) 교통현황

(1) 차량교통

노들길 - 양평로 진출입을 위한 통과차량이 대부분이며, 현재 양화대교 공사로 인해 노들길 - 양화대교 이

용차량이 본 구간으로 우회하고 있다. 가로 교통량은 1,227~1,240 pcu/시 규모로 구간내 혼잡은 발생하지 않으며, 대상지 주변 접근 교통량은 오전 150pcu/시 규모이며, 오후는 260pcu/시 규모이다. 대상지 노상 주, 정차량은 오전 28대 규모이며, 오후 48대 규모인데 대부분 불법 주, 정차 차량이다.

(2) 보행자교통

시간당 평균 이용자 80명 이내로 보행인구가 적은 편임. 보행자들의 주 이용시간은 학교 주변의 경우 등하교시로 초중고생으로 상당히 붐벼 보행안전에 대한 대책을 요하며, 당산초등학교부터 노들길 방향 및 노들길 주변 보행자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3) 이용자 분석

대상지 주민 및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대체로 불만족하고 있으며, 개선되길 바라는 점은 주차공간 확보, 휴식공간조성, 건물외관 개선, 가로시설물 설치, 차량통제, 환경조형물 도입, 포장개선 등을 들고 있었다.

III. 설계의 목표 및 기본구상

1. 설계의 목표 및 방향

1) 친환경성

- (1) 주변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거리 조성
- (2) 친환경적 포장재료의 사용
- (3) 학생들의 생태체험이 가능한 공간 조성

2) 장소성

- (1) '당재(堂고개)'의 의미를 살린 공간 마련
- (2) 과거 양화진 나루터와 선유도의 장소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거리

3) 안전성

- (1) 보행자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는 거리
- (2) 장애자들이 불편없이 자유로이 걸을 수 있는 거리

4) 쾌적성

- (1) 푸르름이 있는 녹화거리 조성
- (2) 한강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친수공간 도입
- (3) 다양한 보행체험을 위해 변화있는 가로 식재패턴 도입

5) 생동성

- (1)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는 활기찬 거리
- (2) 밤낮으로 활용이 가능한 살아있는 거리

6) 연결성

- (1) 목동에서 안양천, 한강을 연결하는 녹지축 연결
- (2) 대상지 전 구간을 자연스럽게 보행동선으로 연결
- (3) 주변의 학교의 공원화 사업과 연계
- (4) 지역 주민들이 가로로 자연스럽게 접근

7) 민주성

- (1) 설계과정에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설계
- (2) 주민의 영업, 보행 행태를 최대한 반영하는 설계

2. 기본구상

1) 전체 공간은 과거 양화진 나루터로 이르는 뱃나들길의 상징화

2) 공간을 마을어귀공간, 문화의 길, 당산공원, 자연의 길, 뱃나들 공간으로 구분

(1) 마을어귀공간은 전체 대상지의 진입공간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제공

(2) 문화의 길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의 역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

(3) 당산공원은 사라진 당산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사라져간 마을의 신성한 자연공간을 재현

(4) 자연의 길은 당산초등학교 담장을 허물고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연 체험의 장 조성

(5) 뱃나들 공간은 선유도로 이르는 보행육교가 위치한 곳으로 선유도로의 보행을 유도하는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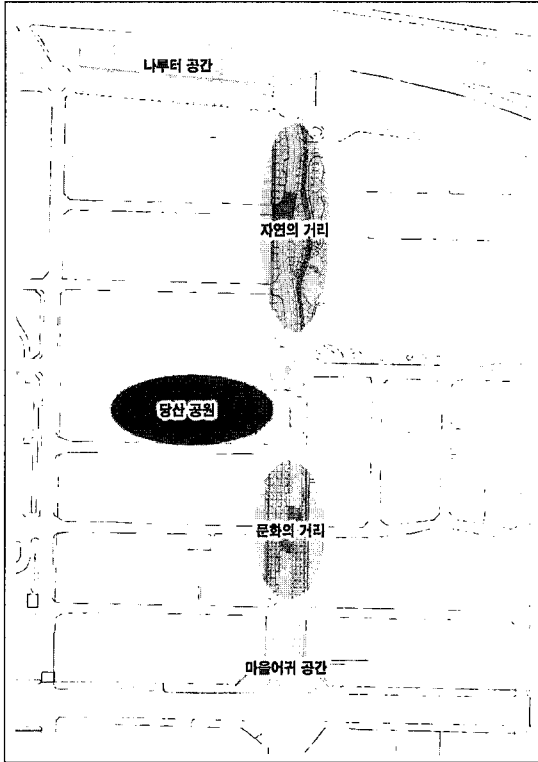


그림 3. 공간구상

IV. 기본계획

1. 동선계획

1)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을 위해 필요이상의 차선을 축소(왕복4차선에서 2차선으로)하여 보도의 폭을 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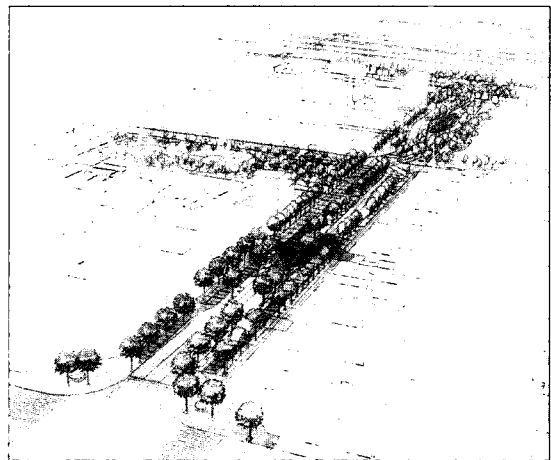


그림 4.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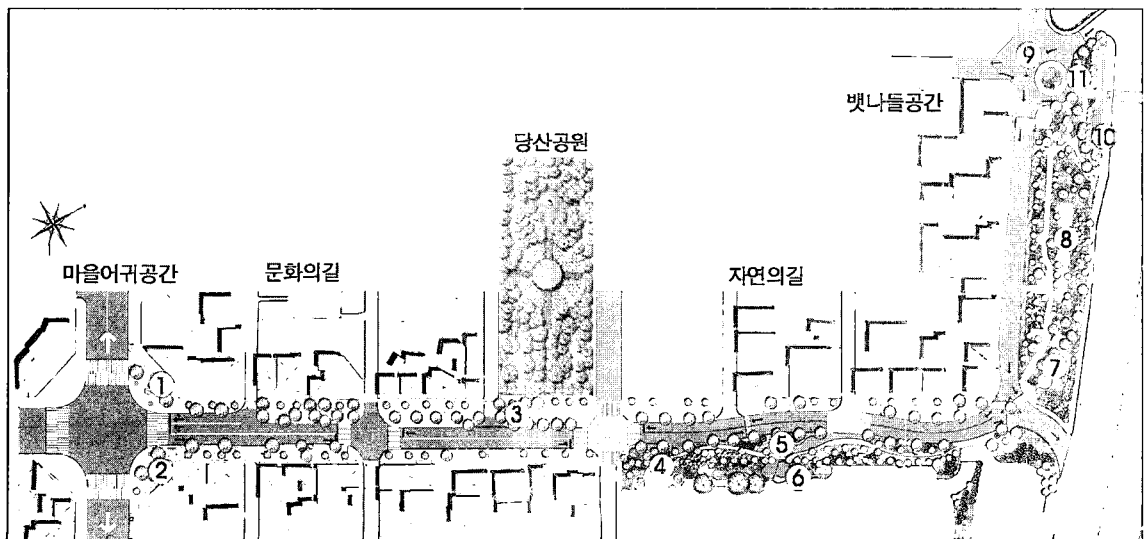


그림 5. 기본계획도

범례 : 1: 당재길 안내판: 2: 영등포구 안내판: 3: 자전거전용도로: 4: 놀이공간: 5: 커뮤니티광장: 6: 생태연못: 7: 맨발산책로: 8: 기존체육시설: 9: 주차장: 10: 데크: 1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2: 로타리

2) 차량감속 및 단순 통과차량의 감소를 위해 보차공존 도로 개념을 도입한다.

(1) 문화의 길은 주변 건물의 이용 행태를 반영하여 보도의 폭을 달리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굴절형의 도로구조 도입

(2) 자연의 길은 숲길을 걷는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굴곡형 도로구조 도입

(3) 뺏나들공간 서쪽 교차로는 로터리를 도입하여 차량의 속도를 억제하고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

2. 식재계획

1) 기본방향

(1) 기존의 수목(양버즘나무, 은행나무)를 최대한 활용

(2) 다양한 보행체험을 위해 공간별 다른 수종 및 식재패턴 도입

(3) 관목, 초화류의 플랜트박스를 도입하여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

(4) 당산초등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의 자연학습을 위한 다양한 야생초화류, 수생식물 등 도입

(5) 생태공간에는 상, 중, 하층의 생태적으로 안정된 식재기법의 도입

2) 주요수종

(1) 마을어귀공간 : 당산목으로 주요 사용되는 느티나무 식재

(2) 문화의 길 : 기존의 양버즘나무와 더불어 느티나무 식재

(3) 자연의 길 : 다양한 수종을 도입한 자연형 식재

(4) 뺏나들 공간 : 버드나무 및 자연형 식재

3. 포장 및 가로시설물 계획

1) 포장

(1) 마을어귀공간 : 화강석포장

(2) 문화의 길 : 점토벽돌포장

(3) 자연의 길 : 자연친화형의 마사토, 황토볼포장, 사교석포장

(4) 기타 :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투수콘 포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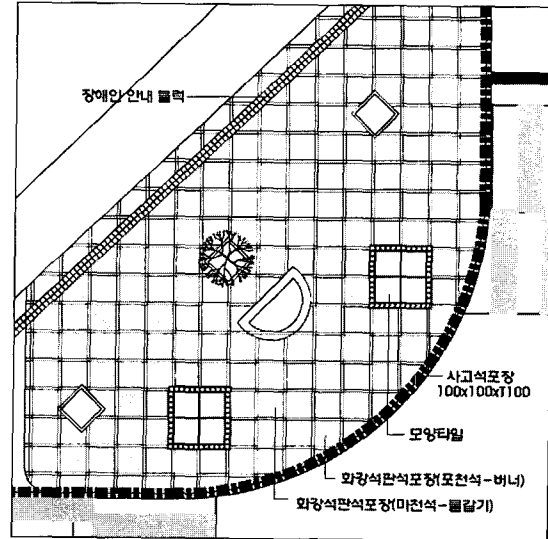


그림 6. 포장설계

자전거도로 설치

2) 가로시설물

(1) 조명등

부드러운 곡선형태의 가로등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갖도록 함.

자연의 길은 은은한 분위기를 위해 반사판을 이용한 간접조명등 설치

주요 수목을 조명하기 위한 상향등 설치

(2) 벤치겸용 플랜트 박스

- 화강석 재료의 벤치겸용 플랜트 박스 도입하여 보행자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 주로 문화의 길에 배치하며 위치는 수목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칭되는 플랜터를 한쌍씩 설치

- 플랜터 내부에는 관목 및 야생초화류 식재

(3) 종합안내판 및 표지판

- 마을어귀공간에 전체 대상지 및 영등포 지역에 대한 종합안내판 배치

- 종합안내판은 반원형으로 뒷면에 앉을 수 있도록 설계

(4) 전시벽 및 앉음벽

- 당산초등학교 앞 커뮤니티 공간에 설치하여 영등포와 관련된 옛 그림, 시 등과 학생들과 시민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당선된 작품을 수시로 전시하도록 유도
- 앉아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면부에 블라드 설치

(5) 도판타일

- 영등포의 과거, 현재의 문화, 자연에 대한 내용을 도판타일로 제작하여 바다에 부착
- 마을어귀공간에는 영등포 지역 고지도 및 현재 지도를 도안화하여 도판 제작
- 문화의 거리에는 영등포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재 영등포의 명소를 도안화하여 도판제작
- 자연의 길에는 생태연못과 연계하여 영등포 지역에 서식하는 수목, 조류, 어류 등을 도안화한 도판 제작
- 전시벽에는 선유도 등 이 지역에 대한 시, 그림 등을 도안화하여 도판 제작



그림 7. 도판타일의 예

(6) 블라드

- 문화의 길에는 가공한 원형과 사각형의 화강석 통들을 혼용하여 변화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자연의 길에는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치

V. 공간별 설계

1. 마을어귀공간

- 1) 설계개념
 - 당재길의 입구로서 환영의 공간

- 대상지 전체에 대한 소개 및 정보전달을 위한 공간

2) 설계요소

종합안내판 : 반원형, 당재길 주변 안내도 및 영등포구 안내도

- 당재길 표지판 : 수직형
- 당나무 :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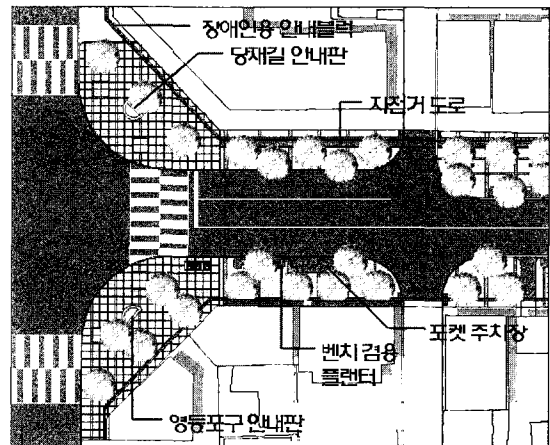


그림 8. 마을어귀공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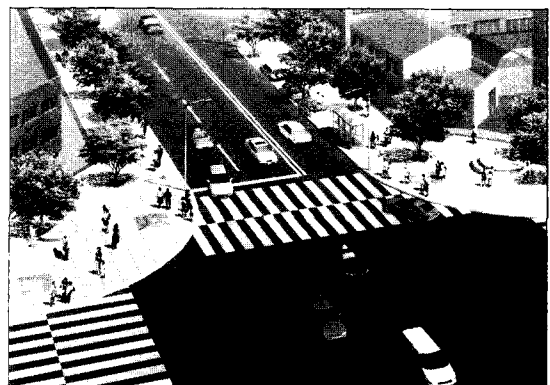


그림 9. 마을어귀공간

2. 문화의 길

1) 설계개념

- 당산, 양평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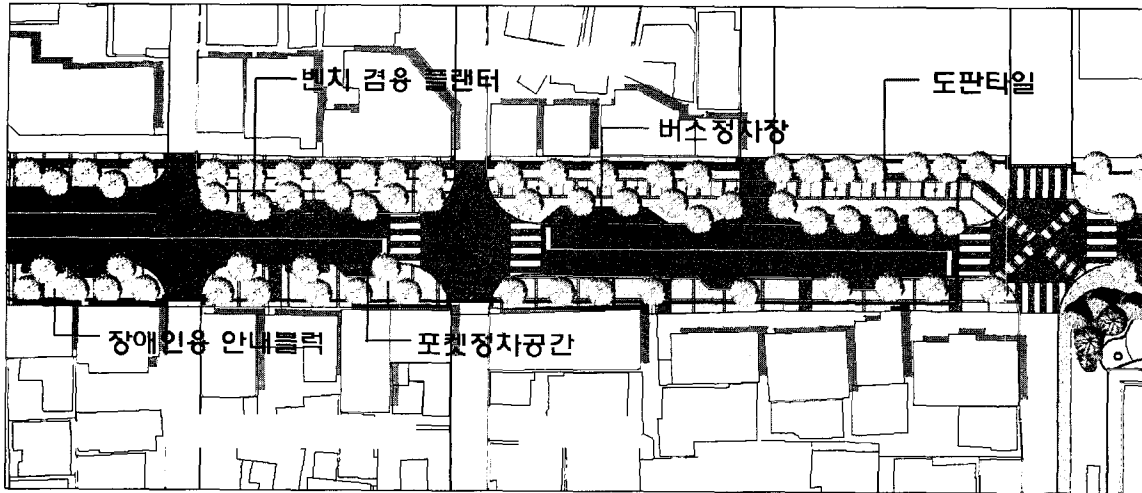


그림 10. 문화의 길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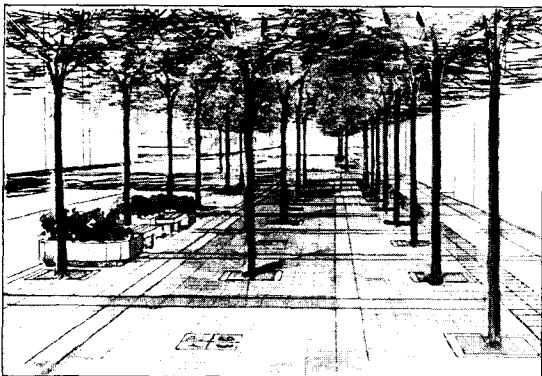


그림 11. 문화의 길

주변 건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보도폭을 조정함으로써 이용 행태 반영

2) 설계요소

- 전체적으로 굴절형 도로 구조로 하며, 교차로 부분의 포장을 달리하여 주행속도 억제
- 영등포의 과거, 현재의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도판타일 도입
- 녹음을 위한 가로수와 휴식을 위한 벤치 겸용 플랜터 도입

3. 당산공원

1) 설계개념

- 현대 도시민의 사라져간 자연의 신성함을 일깨우는 공간
- 도시민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공간
- 신성한 공간의 전통적 패턴의 도입

2) 설계요소

- 당집과 당나무(노티나무)
- 외부에서 당집으로의 (俗의 공간에서 聖의 공간으로) 전이공간
- 근린체육시설물, 유아용 놀이시설물, 다목적 광장, 산책로

4. 자연의 길

1) 설계개념

- 대상지 주변에서 한강에 이르기까지의 사라져간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공간
- 학교 담장을 허물고 학교 주변공간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공간 조성
- 주민참여에 의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2) 설계요소

- 차량속도 억제를 위한 자연스런 굴곡형 도로 도입
- 주변지역 자연을 알 수 있는 수목, 조류, 어류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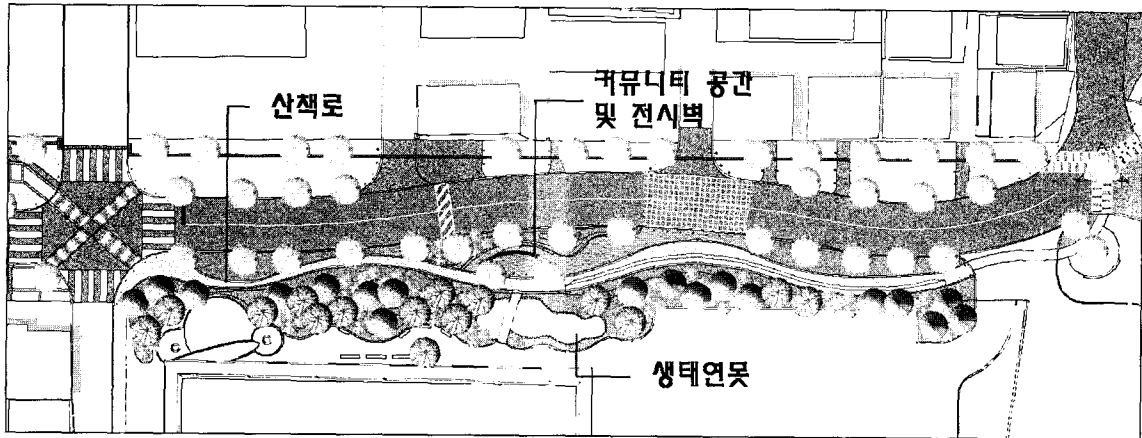


그림 12. 자연의 길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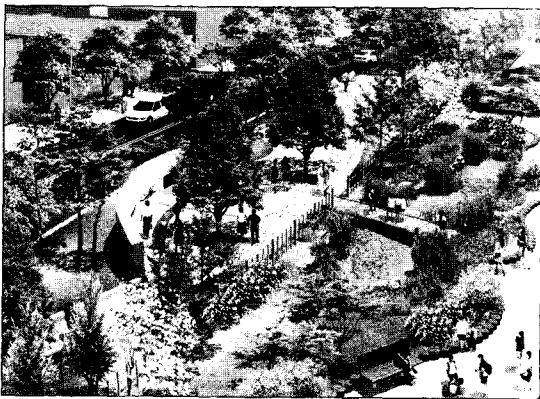


그림 13. 자연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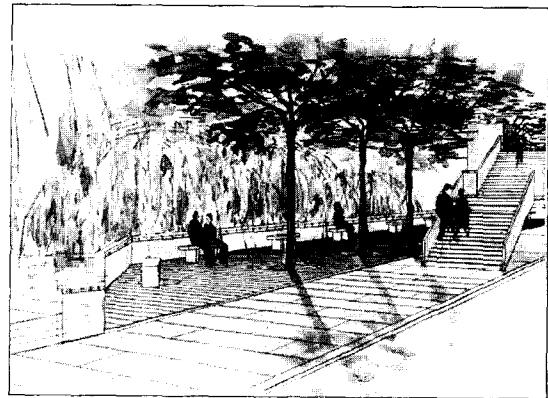


그림 14. 뱃나들공간

한 도판타일

- 만남과 대화, 휴식, 이벤트가 있는 주민참여 광장
- 주변 지역에 대한 시, 그림, 글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벽
- 수생식물과 관찰 데크가 있는 생태연못
-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산책로, 자연학습장

2) 설계요소

- 보행육교 부분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속도 억제를 위해 로터리 도입
- 육교 하단에 배모양의 목재 데크 도입
-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및 장애인용 완만한 램프 도입
- 주변에 주차공간 확보

5. 뱃나들공간

1) 설계개념

- 과거 양화나루터를 상징하는 휴식공간
- 선유도 공원에 이르는 진입공간
- 기존 체육시설공간의 존치

VI. 결론

한 설문조사에서 걷고 싶은 녹화거리는 차량의 위험을 느끼지 않고 편히 지나갈 수 있는 길, 문화, 예술, 자연이 살아있는 길, 산으로 강으로 이르는 길, 구불구불

한 숲 속을 거닐거나 하천을 따라 가는 길, 나란히 선 나무사이로 거니는 길, 연인과 함께 걷고 싶은 길, 앞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길 등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본 설계는 제한된 도시공간이어서 충분하게 이러한 개념을 도입할 수 없었지만 최대한 이러한 길을 도심에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여러 단계의 심의와 협의과정에서 원래의 계획안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그런 대로 원안이 유지된 것은 다행이다. 시간에 쫓기고 경비를 고려하다 보니, 보다

정교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디테일을 설계하지 못한 게 아쉬운 점이다.

당재길이 동네와 동네를 나누는 경계의 공간이 아니라 이들 주민들을 화합하게 하고, 결합하게 하는 길이며,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이곳에서 쉬고, 뛰고, 일하고, 걷고 배우는 생활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

주 1. 편집자주: 이 설계안은 2001년 5월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당재길 걷고 싶은 녹화거리 설계" 현상공모에서 당선 작품입니다.

원고접수: 2002년 2월 26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2년 3월 26일

한국조경학회지 조경작품평가기준 제4조에 의거하여 심사필